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이홍구, 대타 만루홈런

KIA, 한화에 9-4 승…험버, 불안한 피칭 속 2승
김기태 '대타 작전', 김성근 '유창식 카드' 압도
쌍방울 사제대결서 먼저 웃고 한화 4연승 저지

김기태

김성근

KIA 이홍구가 속죄의 만루포를 쏘아올렸다.

KIA 타이거즈가 29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9-4로 승리를 거뒀다. 5-4의 박빙의 리드가 이어지던 6회말 포수 이홍구가 대타 만루 홈런을 터트리며 팽팽한 승부의 추를 기울였다.

험버와 탈보트의 마운드 대결로 전개된 초반 기싸움에서는 한화가 앞섰다. 탈보트가 3회까지 볼넷 하나만을 허용하는 깔끔한 피칭을 선보인 반면 험버는 1회부터 위기를 맞았다. 첫 상대 이용규에게 중전안타를 허용한 험버가 볼넷으로 무사 1·2루에 몰렸다. 김경언의 번트때 3루 주자 이용규를 덕아웃으로 돌려보내기는 했지만 김태균-최진행에게 연달아 볼넷을 허용하며 밀어내기로 선취점을 내줬다.

삼진 두 개로 1회를 간신히 넘긴 험버는 3회 장타에 흔들렸다. 선두타자 김경언에게 중월 솔로포를 맞은 험버는 1사에서 최진행에게 2루타를 허용한 뒤 송광민의 적시타로 세 번째 점수를 내줬다. 5회에도 김회성에게 솔로포를 얻어맞는 등 험버는 5이닝 7피안타(2피홈런) 4사사구 3탈삼진 4실점으로 마운드를 내려왔다.

아쉬운 피칭이었지만 타선의 도움으로 지난 4월4일 kt전 승리 이후 4번의 도전 끝에 2승을 챙기는데는 성공했다.

0-3으로 뒤지던 4회말 선두타자로 나온 최용규의 첫 안타가 공격의 시발점이 됐다. 필의 안타로 무사 1·3루, 4번 나지완의 3루수 앞 땅볼 때 홈에 들어오던 3루주자 최용규가 아웃됐지만 최희섭이 좌익수 키를 넘기는 2루타로 1-3을 만들며 공격 흐름을 이었다. 그리고 이범호·김다원의 안타와 이성우의 2루타가 연달아 터지면서 KIA는 4회에만 5점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5-4의 팽팽한 승부가 벌어지던 6회, 사제간의 지략대결에서 제자 김기태가 웃었다.

한화 투수 송창식이 최희섭과 이범호에게 연속 안타를 허용하자 김성근 감독이 '잠수함' 정대훈으로 투수를 교체했다. 김다원이 몸에 맞는 볼로 걸어나가면서 만루, 이성우가 우익수 플라이로 물러나자 한화 벤치에서 전날 선발로 준비를 했었던 좌완 유창식을 마운드로 올렸다.

그러자 KIA 벤치가 응답했다. 김기태 감독은 멀티안타를 기록한 최희섭을 빼고 3루에 대주자 고영우를 일찍 투입했다. 그리고 타석에는 좌타자 이호신 대신 우타자 이홍구를 투입했다. 결과는 만루홈런이었다.

이홍구는 2B-1S의 볼카운트에서 유창식의 141㎞짜리 직구를 잡아당겨 자신의 통산 3호 홈런이자 두 번째 만루포를 찍었다. 지난 26일 두산과의 원정경기에서 수비 실수로 연장 12회 끝내기 희생플라이를 허용했던 이홍구는 큰 것 한방으로 앞선 실수를 만회하며 승리의 주역이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짜릿한 '그랜드슬램' 29일 오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5 타이어뱅크 KBO 리그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에서 KIA 9번타자 이홍구가 6회말 1사 만루 때 비거리 115미터 좌월 만루홈런을 치고 홈인한 뒤 덕아웃에서 동료선수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덕아웃 톡·톡

김기태, 야수 훈련 도우미 자청 "마음같지 않아"

▲"한방에 됐잖아." = KIA의 홈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챔피언스필드에 '조계현의 야구 교실'이 열린다. 대상은 훈련 도우미로 나오는 진흥중·고 야구부 학생들. KIA는 지역 아마 선수들에게 훈련 보조 역할을 맡기고, 이들 모교에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동성중·고와 진흥중·고가 매년 돌아가면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조 수석코치는 틈틈이 꼬마 선수들을 붙잡고 공 던지는 요령 등을 알려주고 있다. 29일에도 어김없이 진행된 야구교실. "어깨를 굽히고 공을 던지고 있다. 가슴을 내밀고 공을 던져보라"고 원포인트 레슨을 해준 조 수석은 바로 좋은 공을 던지자 "한방에 됐잖아"라며 즐거워 했다. 한 때 프로야구계를 풍미했던 특별한 이의 지도를 받은 선수의 반응은 어땠을까? "조계현 수석코치님이 누군지 아느냐?"는 질문에 "아니요"라며 해맑게 고개를 흔들던 꼬꼬마 선수. 알고 보니 2002년생. 1964년생인 조계현 수석코치는 2001년 은퇴했다.

▲"지금까지 한 게 없으니까요." = 요즘 KIA에서 훈련 시간에 가장 바쁜 선수는 고영우다. 내야수인 고영우는 올 시즌부터 외야까지 겸업하고 있다. 타격 훈련은 기본이고 수비 훈련은 두 번에 나눠서 한다. 내야 수비 훈련이 끝난 뒤 고영우는 "지금까지 한 게 없으니 열심히 해야한다"며 외야수용 글러브를 끼고 다시 그라운드로 나갔다. 주루 훈련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대주자가 고영우에게 주어진 가장 큰 역할이다. 발 하나는 자신있는 고영우는 "김주찬, 신종길 선배님이 정말 빠르시다. 내가 두 선배님들을 못 따라가지만 팀에서 그 다음 정도로 뛸 자신은 있다"고 활짝 웃었다.

▲"죽고 싶었어요." = 지난 주말 두산과의 경기가 끝난 뒤 광주로 내려오는 길이 멀게 느껴졌던 포수 이홍구. 연장 12회 혈투가 벌어졌던 지난 26일, 이홍구는 중견수 김호령이 넘겨준 공을 잡지 못하면서 두산에 끝내기 희생플라이를 허용했다. 이홍구는 "공이 갑자기 사라졌다. 옆구리를 맞고 떨어졌는데 눈 앞이 깜깜했다.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다"고 심경을 밝혔다. 아쉬운 실수로 팀의 패배를 지켜봐야했던 이홍구는 28일에는 나카무라 배터리 코치의 지도 아래 빗 속 특별 포구 훈련을 했다.

▲"마음 같지 않아." = 29일 수비 훈련 시간에 내야에 낯선 이가 하나 있었다. 노란 글러브를 끼고 펑고를 받고 있던 이는 바로 김기태 감독이었다. 공을 받고 들어온 김 감독은 "마음 같지 않다"며 너털웃음을 터트렸다. 김 감독의 내야 진출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운동 겸 선수들의 컨디션 체크였다. 김 감독은 "외야에는 투수들이 훈련을 하고 내야에는 야수들이 훈련을 하니까 양쪽 모두 살펴보려고 했다. 전날 비 때문에 수비 연습을 하지 못했던 만큼 뒤에서 바운드 처리하는 것도 보고 가까운 데서 컨디션을 살펴보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류 복귀, 한걸음 가까이

두번째 불펜 피칭 소화

류현진(28·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어깨 부상 이후 두 번째 불펜 피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복귀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류현진은 29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홈경기를 앞두고 불펜에서 포수를 앉혀놓고 25개의 공을 던졌다.

돈 매팅리 감독, 릭 허니컷 투수코치, 스탠 콘디 트레이너가 지켜보는 가운데 어깨 부상 이후 두 번째 불펜 피칭을 가진 류현진은 첫 번째 불펜 피칭 때와 마찬가지로 변화구를 섞지 않고 직구만 던졌다.

MLB닷컴의 다저스 담당인 켄 거닉 기자가 트위터에 올린 내용을 보면 류현진의 불펜 피칭에는 앤드루 프리드먼 운영부문 사장까지 직접 나섰다. 류현진은 불펜 피칭 이후 프리드먼 사장과 짧은 대화를 나눴다고 거닉 기자는 소개했다.

류현진이 없는 동안 3선발 역할을 해주던 브랜던 매카시가 팔꿈치 인대 손상으로 시즌 아웃이 확정되면서 다저스는 선발진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프리드먼 사장이 류현진의 불펜 투구를 직접 지켜본 것도 이러한 상황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연합뉴스

48S 오승환, 日 한신 외국인 통산 최다 세이브

일본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스 마무리 오승환(33)이 이틀 연속 세이브를 올리며 9세이브로 센트럴리그 구원 부문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그리고 일본 통산 48세이브로 제프 윌리엄스(47세이브)를 넘어 한신 외국인 선수 통산 최다 세이브 기록을 세웠다.

오승환은 29일 일본 효고현 니시노미야 고시엔구장에서 열린 야쿠르트 스왈로스와의 홈경기에 3-1로 앞선 9회초 마운드에 올라 1이닝 동안 볼넷 한 개만 내주고 무피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냈다. 오승환은 첫 타자 야마다 데쓰토를 시속 151㎞짜리 직구로 압박해 헛스윙 삼진 처리했다.

우에다 쓰요시를 볼넷으로 내보냈지만, 가와바타 싱고를 3루 파울 플라이로 잡아내며 기세를 올렸다. 우에다가 2루에 진출했으나 오승환은 시속 134㎞짜리 포크볼로 다카이 유헤이를 투수 땅볼로 유도해 실점 없이 경기를 끝냈다.

이틀 연속 세이브를 올린 오승환은 요미우리 사와무라 히로가즈(8세이브)를 제치고 센트럴리그 구원부문 단독 선두로 올랐다. 지난해 39세이브로 센트럴리그 구원왕에 오른 오승환은 올해 9세이브를 추가해 윌리엄스 기록을 넘어섰다. 오승환은 시즌 평균자책점을 1.50에서 1.38로 낮췄다.

/연합뉴스